

잘 나가는 'AI 폴더블폰'... 삼성, 세계 1위 수성 '청신호'

갤럭시 Z폴드6·플립6 흥행가도 전작대비 인도 사전판매량 40% ↑ 갤럭시 링, 美 초도 물량 완판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삼성스터오 홍대에 마련된 체험공간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방문객들이 갤럭시 Z 폴드6·플립6,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갤럭시 링 등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폰(Z폴드6·Z플립6)과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링이 글로벌 시장에서 조기 완판 행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에서는 사전판매량이 전작보다 40% 증가한 데 이어 갤럭시링은 미국에서 사전 판매 6일 만에 모두 팔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슬하게 지키고 있던 1위 자리를 견고히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삼성전자 인도법인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전판매를 시작한 갤럭시 폴더블폰6 사전판매량이 전작보다 40% 증가했다. 이는 인도에서 판매된 삼성 폴더블폰 시리즈 중 최고치다.

인도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삼성전자의 전체 흥행 지표로도 볼 수 있다. 인도 시장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 2위로 규모 뿐만 아니라 매년 두자릿수의 시장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

문이다.

이에 삼성전자가 전작 대비 10% 이상 높게 설정한 폴더블폰6 판매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 행사를 열고 폴더블 폼팩터와 갤럭시 AI를 결합한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를 전격 공개했다. 최초 AI폴더블폰인 동시에 갤럭시

시 S24에 이은 삼성전자의 두 번째 AI 스마트폰이기도 하다. Z폴드, 플립5와 비교해 부피와 무게는 줄고 내구성은 강화됐지만 전작을 뛰어넘는 AI 기능을 자랑한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초로 내놓은 초소형 컴팩트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은 조기 완판됐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준비한 갤럭시 링 초도 물량은 사전 판매 시작 6일 만에 소진됐다. 국내

에서는 골드 색상이 완판됐다. 이밖에도 사전 판매를 시작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준수한 초반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이번 신제품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입지를 좌우할 것이라 전망이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물론 애플이 폴더블 폰 개발에 착수하면서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8%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전년동기대비 3%포인트(p) 줄었다. 같은기간 애플은 16% 점유율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4%p에서 2%p로 줄였다.

최근 애플은 폴더블폰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폴더블 관련 특허를 신청한만큼 업계에선 애플이 내년에는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가성비만 앞세우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최근 기술력까지 앞세우며 시장을 선점하는 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의 이번 신제품이 흥행을 이어 간다면 올해 하반기 세계 1위 자리를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언팩 행사의 시사점은 스마트폰 업황 회복과 동시에 갤럭시 제품 시장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전망"이라 "2024년 폴더블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은 44%로 2024년 2620만대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23년 기준 삼성전자 52%, 중화권 업체들 40% 등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벤더 폴더블 출시 본격화에 따른 시장 입지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1위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김광수 LS증권 연구원은 "현재 갤럭시 링은 스마트폰 판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우선 제품이 출시된 이후 갤럭시 링이 갤럭시 시워치에 버금가는 UX를 보유한다면 스마트폰 판매에 더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전자, 스마트팩토리 사업 박차... "2030년 조 단위 매출 목표"

66년간 데이터·노하우 축적 AI·DX 접목 등 솔루션 고도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 적용된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 냉장고 생산라인의 모습. /LG전자

LG전자가 지난 66년간 축적해 온 제조·생산 데이터와 노하우에 AI(인공지능), DX(디지털전환) 등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에 속도를 낸다.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의 외판(그룹 계열사 제외) 매출을 조 단위 이상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LG전자는 올 초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LG그룹 계열사들의 생산·제조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생산기술원이 그간 진행해 온 생산 컨설팅, 장비 및 생산운영시스템 개발, 생산기술 인력 육성 등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외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원년에 해당하는 첫 해이지만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생산기술원이 LG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외부 업체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수주 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요 고객사는 이차전지 제조업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이다. 향후에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F&B(식품료) 등 공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군으로 적극적으로 진입하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제품(HW) 중심이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무형의 영역을 결합해 미래 지향적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이 같은 솔루션 사업은 기업간거래(B2B)의 고속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는 지난 66년간의 공장 설계·구축·운영을 통해 대대적인 제조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최근

10년간 축적하고 있는 제조·생산 데이터의 양만 770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고화질 영화 19만7000여 편을 저장하는 용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스마트팩토리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 생산요소기술도 사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LG전자 생산기술원이 출원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관련 특허는 1000건을 넘어선다.

LG전자는 이러한 제조 데이터와 노하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생산요소기술에 AI와 DX를 연계,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LG전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활용하는 생산시스템 설계·모니터링·운영 ▲빅데이터 및 생성형 AI 기반 설비·공정관리, 산업안전, 품질검사 ▲산업로봇 등을 모두 포함한다. /구남영 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현대모비스 PBV 특화 에어백 첫 공개

'도어 장착형·자립형' 2종 개발

현대모비스가 목적기반(PBV)에 특화된 에어백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18일 차량 내부가 상대적으로 넓고 다채로운 디자인이 가능한 PBV에 특화된 '도어 장착형 커튼 에어백'과 '자립형 동승석 에어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두 기술 모두 충돌이나 전복 사고 시 탑승객의 이탈을 방지하거나 상해를 대폭 저감시킨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PBV용 에어백의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트 위치나 탑승객의 방향이 자유로운 특성에 맞춰 고객사 실내디자인에 맞춘 다양한 에어백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LS에코에너지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매출 4125억, 영업이익 244억

LS에코에너지가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LS에코에너지는 올 상반기 매출 4125억원, 영업이익 244억원, 순이익 210억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3637억 원에서 1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12억원과 12억원에서 118%와 1627%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 2023년 연간 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역대 분기 및 반기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각각 5.9%와 5.1%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CC, 인재·노선 확보 분주... 하반기 '휘훨' 난다

장거리 노선 사업 영역 확장 승무원 등 신규 채용 줄이어

항공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항공사들의 대규모 채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들이 앞다퉀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여행객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항공 인력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19일까지 신입 부기장을 모집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채용 인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두 자릿수 규모라고 전했다. 하반기 유럽행 장거리 노선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만큼 대규모 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에어부산은 캐빈승무원, 운항 승무원, 정비사 등 세 직군에서 80여명을 신규 채용했다. 중국 노선 탑승객이 지난해 동기 대비 350% 늘었으며, 올

해 하반기 부산~발리 노선에 취항하므로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6월 객실 승무원 100여명 채용에 나선데 이어 경력직 기장·부기장을 각각 30명씩 총 60명 채용한다. 에어프레미아 또한 신규 항공기 도입이 예정돼 있어 승무원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부터 채용에 나서 신입 객실 승무원 46명을 채용했

다. 이미 158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한 상태다. 2024년 6월 11호기부터 7월 12·13호기 등 새로운 기체 도입이 줄지어 있는 만큼 일찍이 신규 채용에 나선 것이다.

한국항공협회 항공일자리취업지원센터 강경국 팀장은 "항공업계 채용이 많다 보니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많은 대학생들이 항공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이전 2018~2019년 때 보다는 채용 시장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백대성 수습기자 iunmcs@